Contents

등급정보 365+ _ 2009 August Vol.156

02 _ 칼럼
소비자 '니즈'에 맞는 양계산물 공급

04 _ 기획특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06 _ 전문가 심층정보
모돈의 이상적인 BCS(신체충실지수) 만들기 위한 영양관리

08 _ 농가탐방 – 소
2008년 등급판정결과 소 부문 우수농가 '믿음농장'을 찾아서

09 _ 농가탐방 – 돼지
도원진생원포크영농조합 '천용민 조합장'을 찾아서

10 _ 등급정보 – 소

15 _ 등급정보 – 돼지

18 _ 등급정보 – 닭고기

19 _ 등급정보 – 계란

20 _ 에세이
쇠고기 이력제 소비자 체험단의 관심이 1박 2일을 뜨겁게 달구다

21 _ 쇠고기 이력제 / 지역축산소식

23 _ 등급판정소식 – 본부

'호박넝쿨'
등급사업본부 고객지원팀 김기완 주임作

칼럼

(사)대한양계협회_ 이준동 회장

소비자 '니즈'에 맞는 양계산물 공급

국내 양계산업은 1960년 마당 닭을 시작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50여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는 국민들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자리 잡아 왔다. 닭고기는 보양식으로 특히 여름철 복날에는 삼계탕을 중심으로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란은 다양한 요리가 개발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식품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한·미 및 한·EU FTA 협상 등 자유무역협정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축산업 전체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수입 장벽이 허물어지는 시점에서 양계산물도 예외일 수 없게 되었다. 즉, 모든 품목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시장을 잠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향후 소비자의 '니즈'에 충족할 수 있는 양계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닭고기와 계란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경우 아무리 외국에서 수입 양계산물이 들어오더라도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도중의 하나가 바로 축산물 등급판정제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본다.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등급판정

은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물을 이용함에 있어 보다 좋은 품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관리해 주는 제도로 주요 축산물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에 적용되면서 국민들의 소비수준을 높여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등급판정이 도입되어 활성화가 먼저 이루어진 이후 양계분야는 뒤 늦게 등급판정에 뛰어들면서 그 역사는 10여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한국양계농협을 비롯한 비종 있는 농장들이 등급판정에 참여하면서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계란의 경우 10여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생산물량의 3.6%정도가 등급판정을 받는 실정이며, 닭고기(육계)의 경우에도 5.4%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급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 실시되고 있는 무항생제, HACCP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 축산물이력제, 브랜드 사업 등과 연계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양계협회는 전체 양계산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금년 6월 양계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농가 홍보 및 자조금 거출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자조금사업은 양계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소비를 늘림으로써 양계인들의 수익을 높여줄 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양계산업 발전에 큰 힘을 보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조금법상 도축장(도계장)으로부터 거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육계는 도계장들과 협조 하에 자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란계 역시 노계처리장들과 손을 잡고 거출에 힘을 쏟고 있다. 처음이라 거출률이 높지 않지만 양계인들의 인식이 바뀌고 관련 업계가 협조를 한다면 계획된 사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양계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본회에서는 FTA에 대응하고 양계산업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종계분야에 대해서는 종계·부화업 허가제 도입, 종계(원종계) 사육수수 쿼터제 도입, 산란계분야는 계란유통구조 개선, 지역별 계란집하장 설치 지원, 육계분야는 육계계열화 사업 개선, 육계사육농가 안정적 수익 확보 방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정부에 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양계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계란 유통구조와 육계 계열화사업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사안들을 재검토하여 농가들의 권익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다.

오는 9월 18일 전국의 양계인들이 양계업계의 당면현안을 논의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2009 전국양계인대회'는 최근 FTA협상 등 어려운 업계 현실 속에서 양계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 위해 전국의 양계인 및 관계인 6천여명이 참여하여 화합의 의지를 다지는 뜻 깊은 만남의 장이 될 것이다. 특히 이 자리는 소비자들에게 양계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행사는 물론 요리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양계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등급정보 365'를 접하는 독자 여러분도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해 양계산업의 현실과 미래 비전을 함께 느끼실 수 있었으면 한다.